

언어학에서 본 영어 공용어화: 언어 생태학적 시각

박병수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용어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논의 중에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은 영어를 우리나라의 제2의 공용어로 제정하여 우리말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문제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영어 공용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공용어 정책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 생태학적 시각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영어 공용어화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영어 공용어화 문제의 본질

2.1. 민족의 정체성과 영어 공용어화

많은 사람들은 영어 공용어화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정 전문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를 국어만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능력의 소유자(bilingual)가 되도록 하는 것을 영어 공용어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영어 공용어화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어 공용어화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영어를 국어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한다. 즉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우리나라의 국어가 되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해도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 영역에서 영어 사용자가 아무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관공서나 법정에서 영어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영어로 업무를 보고 시장에서는 영어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나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시대의 언어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

영어 공용어화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한 나라에 두 개의 국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말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외국어를 인위적으로 국어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억지로 변경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말은 우리 몸과 같다. 몸은 태어날 때 부모님(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산이고, 우리말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다. 우리 몸과 우리말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외국어이지 우리말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인 영어 공용어화는 무리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외교 분야나 국제 무역 분야에서만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한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는 유기적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한 분야가 영어 공용어 영역이 되면 다른 관련 분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주변 분야들이 뒤따라 공용어 영역이 되지 않으면 그 한 분야를 영어 공용어 영역으로 만든 효과도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애초에 부분적이던 공용어 영역이 점차로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공용어 정책도 전반적인 공용어 정책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을 영어 공용어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그 지역을 완전히 중앙 정부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한 영어 공용어 지역을 거기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어 공용어화는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건 전반적으로 실시하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변경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2. 영어 공용어화의 시기상조론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용어화는 현시점에서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장에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좋은 방법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요컨대 영어 공용어화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사실 현 시점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시행한다든가 모든 법과 행정 절차를 영어로 바꾸는 일은 예산 면에서나 방법 면에서 지대한 문제여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영어 공용어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서 안 되는 일이지 시기의 문제나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올 봄에 정부는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개발을 위해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어 공용어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결국 관련 주무부서와 여론의 반대 입장에 부딪히자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공용어화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그 방안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영어 공용어화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어서 잠정적으로 보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므로 그 방안 자체를 폐기해야 마땅하다.

2.3. 경제 발전과 영어 공용어화의 관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이유 중에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 국가 경제가 무한 경쟁의 상황이고 실제로 국제 무대의 공통 언어는 영어이므로 우리 정치 경제 실무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불편 없이 활동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려면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논리는 일견 단순 명쾌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중한 문화적 전통인 우리말을 상실하더라도 경제 발전만 도모하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지상주의 태도는 경제 발전이 문화적 전통과 유산보다 더 중요하므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희생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문화주의 태도는 아무리 경제 발전이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공용어화의 선택은 이 두 가지

관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어 공용어화가 민족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경제지상주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영어가 공용어가 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이 만약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모두 영어를 공용어화 했어야 한다. 또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는 모두 경제 부국을 이룩했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경제 선진국과 일본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고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케냐 등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영어 공용어화는 경제 발전의 충분 조건이 아니며 필요 충분 조건은 더욱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영어 사용 국가들이 경제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영어는 기껏해야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백 보 양보하여 경제지상주의자의 주장대로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더라도 그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2.4. 영어 공용어화와 영어 교육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법이 영어 공용어화라고 생각한다. 일본어가 공용어였던 과거 일제시대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놓으면 영어 교육 환경이 저절로 갖추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영어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영어를 또 하나의 국어로 만들고 나라를 식민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어 교육은 우리 국민이 영어를 잘 배워 나라를 발전시키

기 위험인데 영어 교육을 시키느라고 나라가 식민지 상태로 될 지경이라면 영어를 잘 배워 무엇을 하겠는가?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 교육의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해도 나라를 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어 공용어화가 영어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착각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영어 교육은 영어가 우리에게 외국어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영어 교육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교육 방법을 추구하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영어가 외국어인 상황에서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면, 이 모든 활동이 명분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공용어 정책과 언어 생태계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언들과 언어들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건전한 언어 생태계의 모습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건강한 자연 생태계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건전한 언어 생태계에서 건전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용어 정책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언어 생태계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3.1. 다양성의 중요성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비교적 작은 나라 안에도 많은 방언들이 있다. 경기도 방언, 충청도 방언 등 여러 지역 방언들이 있고 또 이들 각 방언 안에 지방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지방 방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령 같은 경상도 방언이라도 안동 지방 말과 대구 지방 말이 다르고, 경주 부산 진주 김해 지방 말이 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안의 여러 다른 지역에는 제각기 향토적인 특징을 가진 방언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인도네

시아와 같은 다민족, 다언어의 국가에는 수백 개의 언어들에 공존하고 있다. 각 언어마다 또 방언들이 있을 것이므로 그 언어와 방언의 다양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약 3천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중국어나 영어와 같이 수억의 인구가 쓰는 거대한 언어도 있고 사용자가 몇 명 안 되는 소멸 직전의 언어도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각종의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듯이 세계의 언어들도 그와 같은 언어 생태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방언과 다양한 언어의 공존은 국가 통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국가들이 언어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는 통치 차원 이외의 중요한 차원, 즉 생태적 차원이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생태계는 인류 문화가 의존하는 인간 생명의 차원이다. 이와 같은 언어 생태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한 방언이나 언어는 한 민족의 역사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해 온 문화적 전통이다. 우리말의 나이는 반만 년의 우리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어서 몇 십만 년이 될지도 모를 아득한 태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유구한 문화적 전통은 그 자체로서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훼손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방언과 언어는 다른 방언과 언어들과 상호 접촉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 경쟁하며 발달해 왔다. 이웃 언어가 하나 둘 없어져서 마침내 자신이 기대고 비비며 성장할 모든 이웃이 사라지면 자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의 과정을 걷게 된다.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 생태계의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자기의 언어와 남의 언어를 다 같이 귀중하게 보살피고 가꾸어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날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들에 거의 멸종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 언어가 얼마나 귀중한 인류 문화 유산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미국의 이기심과 개발만능주의 문명이 빚은 불행한 결과였다. 이제 와서 캐나다와 미국의 지성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라져 가는 소수 민족 어들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언어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언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 언어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이미 많은 언어들이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무지와 횡포로 말미암아 멸종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을 쇠퇴의 위기로 몰 수 있는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은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스스로 말살하는 반인간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경제지상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3.2. 표준화와 다원화의 균형

영어 공용어화 문제는 또한 표준화와 다원화의 균형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다. 여러 다른 자연 현상에서와 같이 언어 현상에도 표준화와 다원화의 긴장 관계가 있다. 즉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표준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언어를 개별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다원화 세력이 그에 맞서 있다. 이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긴장 관계가 언어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균형이 깨어져서 완전히 표준화되어서도 안 되며 완전히 다원화되어서도 안 된다. 완전히 표준화된다는 것은 지구상에 오로지 하나의 언어만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완전히 다양화된다는 것은 지구상의 어느 집단도 그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언어가 없이 극단적으로 개별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전자는 한 언어가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언어 제국주의의 상태이며, 후자는 인간의 의사소통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혼돈의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영어를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제정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있다. 영국의 한 언어학자의 말처럼 영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영어 제국주의(English Imperialism)'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하다. 현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4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인구의 경제력은 거의 세계 경제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영어를 제도적으로 우리 말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을 허용했을 때 한반도의 언어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말은 2등 언어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비관적인 예측 대신 우리말과 영어가 선의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둘 다 번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아무래도 너무 안이하다.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공용어인 독어와 불어와 이태리어가 세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러한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언어와 약한 언어가 사이 좋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는 우리말이 영어 제국주의에 위축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말의 힘을 키우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오히려 우리가 자칭하여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만들자는 제안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말을 영어 제국주의에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공용어 채택의 현실

끝으로 필자는 현재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할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도는 약 15개의 주요 언어와 수많은 군소 언어들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인도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대영제국에서 독립했을 때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교육정책의 선택이었다. 15개 언어 집단 중

어느 하나도 국민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되는 상황이어서 그 중 어느 하나를 공용어로 채택할 수 없었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절대 다수가 절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불리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직 인도는 의무 교육을 충분히 담당할 만한 경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가 극심하여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영어는 부유한 중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사회 분열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영어에 능통한 첨단 기술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거 진출하는 등 영어 공용어의 혜택도 있으나 이는 일부 특수 계층의 일일 뿐이다.

필리핀은 미국에서 독립한 후 국민 다수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 그러나 영어 사용 능력이 있는 다수의 중산층과 지식층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미국, 호주, 중동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동남아에서 영어 공용어화의 성공 사례는 아마도 싱가포르의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된 동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하다. 중국계가 다수이지만 상당수의 말레이 사람과 인도 사람들도 공존하고 있고 중국계 안에도 북경어와 광둥어 집단이 혼재하므로 결코 어느 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모든 종족에게 외국어인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것이다. 어쨌든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규모나 복잡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별로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 같다.

캐나다의 퀘벡 지방에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 2세기 동안 두 언어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초에 불어 전용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는데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퀘벡의 언어 갈등은 앞으로 어떠한 국면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실정이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으나 공용어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이 영국 식민의 부산물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들 제3 세계로부터 참조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서아프리카의 경우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비애감을 자아내게 한다. 이 지역은 먼저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곳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15-16세기 노예 무역에 의해 서인도 제도로 강제 이주 당했다. 그 뒤 영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서인도 제도에서는 아프리카 토착어에 포르투갈어와 영어가 뒤섞인 이른바 피진(Pidgin)이라는 튀기 말이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이 약 삼백 년 지속되는 사이에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현재는 그 피진을 고정시키고 문자화하여 자기들의 국어로 쓰고 있다. 그것이 크리올(Creole)이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스위스가 복수의 공용어를 쓰고 있다. 벨기에에는 불어권과 화란어권이 충돌하고 있다. 불어권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 했으나 최근에 화란어권이 불어 배척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언어 충돌의 와중에서 대학들도 두 쪽으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명문이던 대학들이 공용어 문제에 휘말려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는 독일어권, 불어권, 이태리어권이 각기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스위스는 연방 정부 체제에 가깝다. 세 언어권역이 정치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온 역사적 배경과 함께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스위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너무 달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항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의 공용어를 쓰고 있는 나라들 중에 영어가 좋아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오랜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국가 조직이 영어 없이 돌아갈 수 없었고 다민족 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영어 공용어화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

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경우이다. 또 스스로 외국어를 끌어들이 제2의 공용어로 제정한 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 영어 공용어화는 결코 우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5. 맺는 말

영어 공용어화는 우리말을 제1의 공용어,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하지는 제안이다. 이 같은 영어 공용어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변경시킬 위험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발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영어 공용어화 정책은 언어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영어 제국주의를 부추겨 결국 민족어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는 영어 공용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말을 더 잘 가꾸고 그 힘을 키우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나라들의 영어 공용어화 정책은 과거 식민주의의 유산이다. 그 많은 문제점과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그들만의 교육지책을 우리가 모방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영어 공용어화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언어 생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는 우리에게 계속 외국어로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